

# 보도자료

2023년 12월 26일 인천 2023-61호

이 자료는 12월 27(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6일(화) 12:00부터 취급 가능

제목 : 2023년 4/4분기 중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및 『지역경제  
보고서(2023.12월호)』 발간

□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23년 4/4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

○ **제조업 생산은 보합세, 서비스업 소폭 증가**

— 제조업은 자동차, 석유화학·정제 등을 중심으로 보합세를 나타내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등이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은행(본부)**은 15개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7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지역경제보고서(2023.12월호)\***」를 **발간**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수록

○ 2023년 4/4분기 중 지역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모두 보합세

○ 상기 보고서에는 **현장리포트** “인천경제자유구역 20년의 성과와 한계”도 **수록**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1부.

2. 현장리포트(“인천경제자유구역 20년의 성과와 한계”) 1부.

문의처: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김규식 과장, 홍창덕 조사역

Tel: 032-880-0032, 0034 Fax: 032-880-0048 E-mail: incheon@bok.or.kr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지역본부>인천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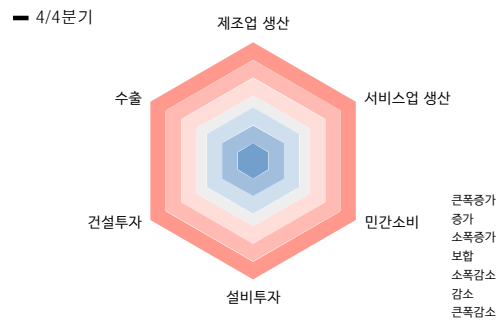
### (1) 개 황

#### 인천지역 경기 보합

2023년 4/4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보합세를 나타내었고,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다. 수요 동향을 보면 민간소비는 증가하고 설비투자 및 수출은 보합세를 보였으나,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보다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매매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고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둔화하였다.

#### 경기 레이더<sup>1)</sup>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 산

#### 제조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기 증가하였다. 식료품, 의약품은 감소하였다. 기계·장비, 자동차, 석유화학·정제 등 나머지 업종들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체추산

전자부품·컴퓨터·영상기 신제품 출시로 인한 수주 증가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의약품은 합병<sup>1)</sup>에

1) 셀트리온은 2023년 8월 17일 이사회승인을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말에 합병이 완료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를 이용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물량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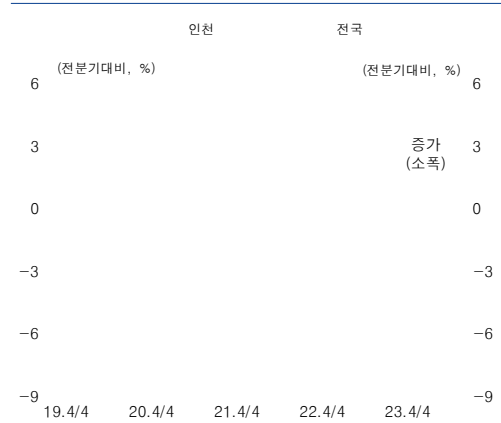
대비하여 생산을 조정하면서 감소하였다. 기계·장비는 국내 건설 시장 침체로 인한 건설 기계 수요 감소로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해외의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여 보합세를 보였다. 자동차는 주요 부품인 반도체의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은 관계기업과의 합병에 따른 매출 증대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침체 및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정제는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소로 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은 크게 증가하였고, 숙박·음식점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운수업은 보합세로 나타났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체추산

도소매업은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기온이 하락하면서 아우터 등의 레저 상품 판매가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 매출은 해외 관광객 증가 및 객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엔데믹 이후 크게 성장했던 기저효과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한편 운수업은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 증가<sup>2)</sup>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sup>3)</sup>하여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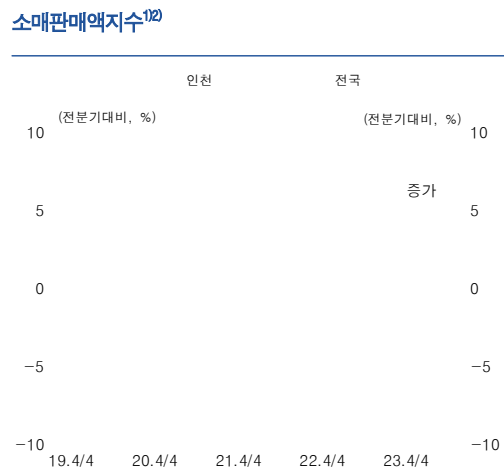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소폭 개선되고 도소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은 경기 하락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3) 수 요

2) 인천공항의 2023년 10~11월 중 운항편수는 31,381편, 여객은 522.6만명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75.0%, 109.7% 증가하여 2023년 3/4분기 월평균(+100.6%, +182.7%)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 2023년 3/4분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증고차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1,250만톤이었으나, 비컨테이너 물동량은 석유가스, 유연탄 등이 감소함에 따라 12.8% 감소한 2,523만톤을 기록하였다.

## 민간소비 증가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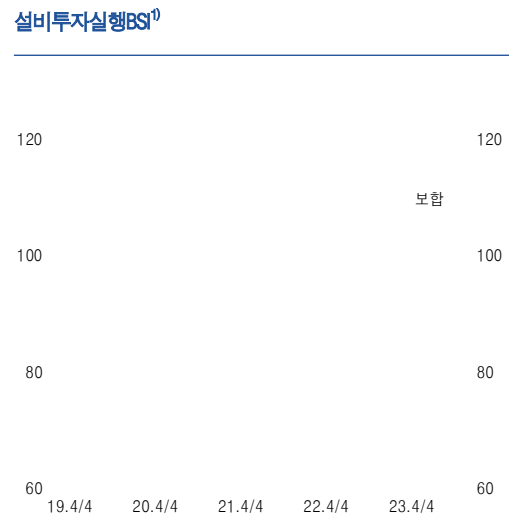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악화<sup>4)</sup>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으며, 재화와 서비스 소비 모두 증가하였다. 재화 소비의 경우 내구재와 준내구재는 각각 자동차 판매, 의복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비내구재는 연료판매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유통업과 요식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4/4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설비투자 포함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포함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전분기 수주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늘어났다. 석유화학·정제는 전년동기 대비 작업의 기저효과로 설비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전기차 생산 관련 설비투자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포함세를 나타냈다. 그 외 철강, 의약품 등의 설비투자도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신차 출시 등으로 설비투자액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하반기에 반도체 설비투자가 마무리된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 및 장비, 가구 및 기타, 의약품 등의 설비투자 규모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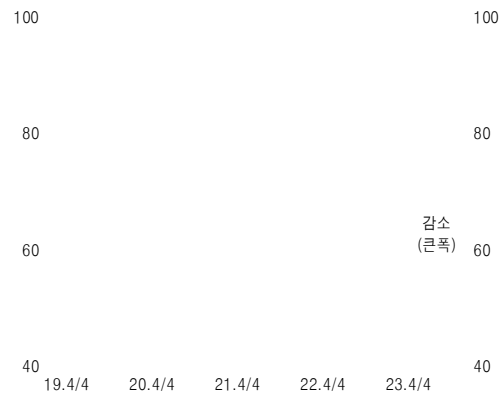
4)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3년 10~11월 평균 94.5로 2023년 3/4분기 평균 98.2에 비해 4.2p 하락하였다.

준으로 전망된다.

### 건설투자 큰폭 감소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 건설<sup>5)</sup>의 경우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건물 착공면적이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도 감소<sup>6)</sup>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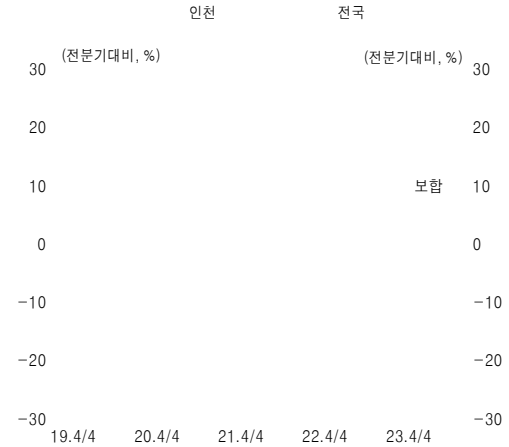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수주액<sup>7)</sup>이 감소하고

주택 미분양 물량<sup>8)</sup>이 늘어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 보합세

4/4분기 중 수출(일평균)<sup>9)</sup>은 보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철강판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 일평균 수출<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 수출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증가<sup>10)</sup>하였다. 자동차는 미국 및 캐나다

- 5) 10월 중 인천지역 건물 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은 53.8% 감소하였다. 공종별로 보면 주거용(-55.8%), 공업용(-75.9%), 상업용(-58.2%) 등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 6) 10월 중 인천지역 토목건설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79.7% 감소하였다.
- 7) 10월 중 인천지역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27.0% 감소하였다.
- 8) 10월 중 인천지역 미분양 주택은 1,693호로 22년 4/4분기(월평균) 2,210.3호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 9) 10~11월 중 인천지역 상위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농약 포함), 무선통신기기, 철강판으로 일평균 수출 기준 3/4분기 대비 반도체(20.4%), 자동차(33.9%), 의약품(29.3%) 무선통신기기(16.0%)의 수출은 증가하였고 철강판(-17.7%) 수출은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0) 11월 기준 인천 전체 반도체 수출 중 대중국 수출은 63.2%를 차지하며, 10~11월 중 인천지역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은 3/4분기 대비 일평균 기준 28.3% 증가하였다.(한국무역협회)

로의 신차 수출<sup>11)</sup>이 증가 전환하였다. 중고차 수출<sup>12)</sup> 또한 증가 전환하면서 자동차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의약품은 백신 및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수출증가로 증가 전환하였다. 무선통신기기 부품<sup>13)</sup>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철강<sup>14)</sup>의 경우에는 수출 판매단가의 하락과 수출 중량의 감소로 인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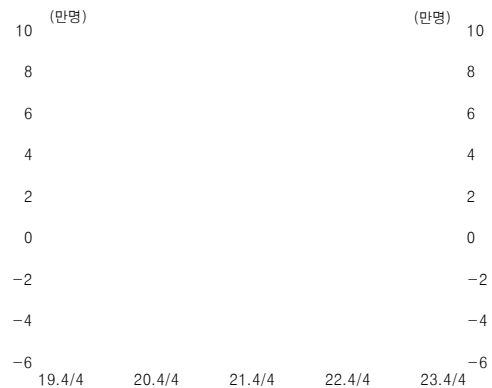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약품은 관계 기업과의 합병 및 바이오시밀러 제품 미국 시장 판매 확대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수출은 해외 수주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수출은 기저 효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석유화학·정제 등은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7만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3/4분기(월평균 4.5만명 증가) 대비 축소되었다. 업종별 취업자수는 제조업(0.1만명 → -1.0만명)이 감소 전환하였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1만명 → 0.2만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4.2만명 → 2.1만명)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1.4만명 → -0.3만명)은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건설업(0.6만명 → 0.9만명)은 상승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3.4만명 → 0.3만명)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비임금근로자(1.1만명 → 1.4만명)는 소폭 증가하였다.

### 취업자수 증가<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11) 10~11월 중 인천지역 신차의 미국과 캐나다로의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3/4분기 대비 각각 54.3%, 1.1%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2) 10~11월 중 인천지역 중고차의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3/4분기 대비 8.0%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3) 10~11월 중 인천지역 무선통신기기 부품의 일평균 수출 기준 3/4분기 대비 15.0%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4) 10~11월 중 인천지역 철강판 수출중량은 3/4분기에 비해 8.3% 감소한 반면, 수출단가는 12.0%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10~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7% 상승하여 3/4분기(3.4%) 상승률을 상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20.1% → 8.9%)의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나, 상품(3.8% → 4.3%)과 서비스(3.0% → 3.2%)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8 (전년동기대비, %)	인천			전국			8 (전년동기대비, %)
	19.4/4	20.4/4	21.4/4	22.4/4	23.12월	24/4	
6							6
4							4
2							2
0							0
-2							-2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주택매매가격 하락 및 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sup>15)</sup>은 전분기말월대비 0.11% 하락하면서 3/4분기(0.55%)에 비하여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주택전세가격<sup>16)</sup>은 전분기말월대비 11월 중 0.34% 상승하며 3/4분기(0.56%)에 비해 상승세 둔화를 보였다.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은 혼조세를 보였다. 대구(0.65%), 서구(0.43%), 연수구(0.23%) 등 신도시 및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한편 미추홀구(-0.82%)는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였고, 부평구(-0.68%)는 공급 물량의 영향 등으로 하락하였다. 지역별 주택전세가격도 혼조세를 보였다. 대구(1.26%), 서구(1.07%)는 정주 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하였으나, 부평구(-0.41%) 등은 신규 입주 예정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2)</sup>

3 (전분기말월대비, %)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3 (전분기말월대비, %)
	19.4/4	20.4/4	21.4/4	22.4/4	23.12월	24/4	
2							2
1							1
0							0
-1							-1
-2							-2
-3							-3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15) 10~11월 중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의 절댓값(-0.11%)은 전국(0.24%) 및 수도권(0.38%)의 절댓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10~11월 중 인천지역 주택전세가격 변동률(0.34%)은 전국(0.63%) 및 수도권(1.1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20년의 성과와 한계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은 2003년 8월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출범하여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2003년 2.6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41.9만 명(2022년)으로, 294개였던 입주 사업체수는 3,481개(2021년)로 증가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빠르게 성장하여 국내의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상업·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도시를 복합개발하고 기업에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추진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되었다. 2000년대 초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각 국간 글로벌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17)</sup> 인천을 시작으로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거쳐 현재는 총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중에 있다.

### 전국 경제자유구역 현황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으로, 2021년 기준 11.9조 원의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액<sup>18)</sup>을 기록하여 국내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전체 매출의 66.6%, 수출의 74.6%를 기록하며 전체 경제규모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과 사업체수도 각각 46.0%, 48.9%로 과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sup>19)</sup>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대규모 부지를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 경제자유구역 제공 주요 인센티브

사명	내용
세액 감면 및 면제	·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 · 수입 자본세 관세 감면 또는 면제
임대료 지원	· 임대료 감면 · 국·공유지 장기 임대(최대 50년)
현금 지원	· 공장·연구시설 설치비, 교육훈련보조금 등
노동 규제 완화	· 장애인 등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파견근로자 관련 규제 완화
외환거래 규제 완화	· 1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당사자간 직접 지급 가능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배제 ·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배제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7) 이와 더불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 부족의 대응방안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FDI 유치가 조성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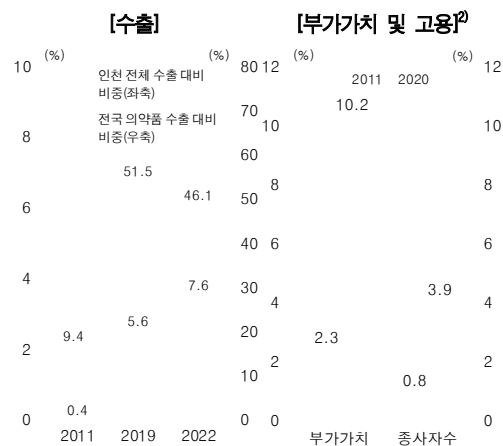
18)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말 기준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148.4억 달러로, 각각 송도 85.3억 달러, 영종 54.7억 달러, 청라 8.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 2021년 기준 매출액(누적) 90.0조 원, 수출액(누적) 21.7조 원, 고용 9.7만 명, 사업체 수 3,481개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인천은 전국 의약품 수출의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88만L 규모의 생산 설비가 집적되어 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인천 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약품 제조업은 2011년 수출이 본격화된 이후 2022년까지 연평균 38.0%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 의약품<sup>1)</sup> 제조업의 인천경제 내 위상



주 : 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인천 제조업 대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항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리적 이점도 크게 작용했다. 바이오의약품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운송하는 콜드체인이 필요한데 공항과 인접 시 운송거리와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리스크와 관리·물류비용의 절감효과가 크다. 여기에 수도권에 위치해 인재 영입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과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 등이 더해지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빠른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모범 사례로 불릴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으나, 조성 취지와 다르게 낮은 외국인 거주자 비중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라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자유무역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20)</sup>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은 2009년 이후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중 전국 및 특·광역시, 그리고 인천지역의 외국인 거주자 비율은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과 대조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조성 의도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정착 및 고급 외국인력을 위한 생활 거주지로서의 정주 환경에 부합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외국인 생활 여건이 제고되고 있는지 고민과 점검이 필요하다.

### 지역별 외국인 거주자 비중



주: 1) 인천경제자유구역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외국인 수 비율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안전부

20) 윤혜영(2023), "경제자유구역 정주환경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과 개선과제-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21(3)